



마음열기

여자가 설레는 ‘남자의 배려’ 8가지

1. 인도를 걷고 있는데 남자가 인도 안쪽으로 살짝 밀어줄 때
2. 비가 오는 날 “우산을 챙겼어?”라고 연락 올 때
3. 사소한 것들 하나하나를 다 기억해 줄 때
4. 외모에 대해 자신감이 떨어지자 칭찬을 해 줄 때
5. 눈을 마주치며 집중해서 들어줄 때
6. 어디서든 예의 바르고 개념 있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7. 걱정해 줄 때
8. 나에게 맞춰줄 때

아내가 남편에게 지켜야 할 에티켓 10가지

1. 자신의 남편을 다른 남편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2. 남편에게 여성의 시점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3. 가끔씩 남편을 칭찬해 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4. 남편에게 시끄럽게 잔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5. 그저 사랑하게만 하면 남편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6. 예전의 불만을 다시 꺼내서는 안 된다.
7. 주는 것만이 남편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8. 당신의 시간을 모두 아이들과 사용해서 남편과 보낼 시간을 없게 해서는 안 된다.
9. 인색함과 절약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10. 남편의 작은 사치에 툭툭거리며 참견을 해서는 안 된다.

아내가 남편에게 꼭 지켜야 할 11가지 에티켓_블랑쉬 에버트

 **남자들이여!!** 당신은 당신의 아내에게 얼마나 배려하고 있습니까? 위의 내용 중 당신이 잘 하고 있는 항목 혹은 당신이 절대적으로 개발해야 할 항목들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보세요.

📖 아내들이여!! 당신은 당신의 남편에게 얼마나 에티켓을 지키고 있습니까? 위의 내용 중 당신의 가슴을 쿵 쿵 찌르는 항목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보세요. 또 이것만큼을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항목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보세요.

📖 자비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당신의 삶에서 당신에게 자비(친절)로운 사람들이 있었다면 서로 나누어 보세요.



나눔

1. 아래 성경을 읽고 다음 질문들에 대해 서로 나누어 보세요.

잠언 11:17

17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잠언 21:21

21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 잠언 21:21, 잠언 11:17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야 되는 이유를 무엇이라 소개하고 있습니까?

📖 아래 성경구절은 자비(친절)로운 사람의 특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 아래 괄호를 채우고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빌립보서 2:4

4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잠언 15:4

4 ()생명나무와 같지만, 잔인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잠언 10:32

32 의인의 입술은 ()을 하지만, 악인의 입은 사악한 것만 말한다

로마서 12:15

15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 잠언 21:21, 잠언 11:17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야 되는 이유를 무엇이라 소개하고 있습니까?

2. 아래 글을 읽고 다음 질문들에 대해 서로 나누어 주세요.

에베소서 2:8

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와 자비는 언제나 함께 있다. 로버트 번즈라는 시인은 자비로운 마음은 가장 하나님을 많이 닮은 마음이라고 소개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 자비에 대한 빛진 자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 우리는 하나님 자비로 구원의 은혜를 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위 글에서 “은혜와 자비는 언제나 함께 있다.”라고 말하는데 “은혜와 자비”는 어떻게 다른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은혜는 어떤 것인지, 그 은혜가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서로 나누어 주세요.

☞ 최근에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거나, 누군가로부터 자비를 받은 경험이 있나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 자비(친절)는 사랑의 실제적인 표현으로 ‘행동하는 사랑’이며, ‘하나님을 가장 닮은 마음’이라 말합니다. 친절을 베풀어야지 하며 마음에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 혹은 지금 당장 당신의 친절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에게 어떻게 친절을 나눌 수 있을지 나누어 주세요.



적용과 결단

우리는 우리의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필요를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느끼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할 일이 많다는 핑계로,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핑계로,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핑계로... 우리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자비를 일부러 피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책을 읽는 것과 실제로 한 주 동안 어떻게 자비를 베풀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자비를 "행동하는 사랑"이라고 소개합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자비'를 뜻하는 크레스토스라는 말과 혼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초기 추종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친절한 사람"이라고 잘못 알려져서 어쩌면 더 적절하게 불렸다고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리고 있습니까?

이번 주 한 주 동안 당신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혼동시킬 수 있는지 도전해 보세요.



기도